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이 수 정

서울여자대학교 / 학생

김 종 남[†]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비자살적 자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에 동의한 44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자해기능평가지(FASM)에서 최소 1회 이상 자해를 했다고 응답한 151부(34%)에서 불성실한 응답 8부와 자살의도가 있었다고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132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도식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서만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인지적 요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초기부적응도식,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

* 본 연구는 이수정(2019)의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김종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3 서울여자대학교 인문사회관 907호 Tel : 02-970-5569, E-mail : kimjn@swu.ac.kr

최근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에 자해사진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 이른바 ‘자해 인증샷’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소수의 학생에게서만 발견되던 자해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점점 확산되어 청소년 자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해는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지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Conterio & Lader, 1998; Zila & Kiselica, 2001). 이러한 자해를 최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자살 행동장애(Suicidal Behavior Disorder)와 구별하여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로 명명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Conditions for Further Study)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비자살적 자해의 차별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자해와 자살시도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되기 때문이다(Martinson, 2002; Mental Health Foundation, 2006; 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에서 재인용). 특히 자해와 자살시도는 치명성과 의도에 있어서 다른 행위로 설명된다. 자살시도는 치명성이 높은 단일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고자 하지만, 자해는 치명성이 높지 않은 다수의 방법을 반복적으로 행한다(Favazza, 1996). 기능적인 면에서도 자살은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시도이나(Gollust, Eisenberg, & Golberstein, 2008), 자해는 부적응적인 방법일지라도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자살 욕구를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되고 있다(Favazza, 1998; Klonsky, 2007; Klonsky & Muehlenkamp, 2007; Muehlenkamp, 2005).

이러한 비자살적 자해는 14~24세 사이의 청소년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Klonsky, 2007; Laye-Gindhu & Schonert-Reichl, 2005), 특히 자해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12~14세에서 가장 높으며, 18~19세에 가장 빈번하다(김수진, 2015). 그러나 국내의 청소년 자해관련 연구는 주로 발달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등 특수학생의 자해행동(김창호, 이근매, 이미애, 2014; 한홍석, 박주연, 2011; 어해룡, 2011; 이성용, 2015; 정경미, 2010)과 품행장애, 섭식장애, 조현병 등 입원 환자 중 자해 집단을 대상(공성숙, 2009; 공성숙, 이정현, 신미현, 2009; 김철권, 조진석, 변원탄, 1992; 전성일, 홍강의, 1996)으로 진행되어, 청소년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자살적 자해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부족하며,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동귀, 함경애, 정신영, 함용미, 2017). 이는 자해 행동 자체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탐색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 및 상담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중 Nock(2009)은 기존의 자해에 대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통합적 이론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해의 위험요인을 원격 위험요인(distal risk factor)과 근접 위험요인(proximal risk factor)으로 분류하였고, 원격위험요인이 근접위험요인인 개인내적 취약성 및 대인관계 취약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

한 고통스러운 정서 및 인지, 사회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게 된다고 보았다. 자해의 원격 위험요인으로는 높은 인지 및 정서적 반응성에 대한 유전적 성향(genetic predisposition)과 아동기 학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해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원격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Gratz, Conrad, & Roemer, 2002). 아동기 학대는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탈 행위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언행으로 자녀를 모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zur, 1987; 김다람, 2016에서 재인용).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경우 자해와의 관련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반면, 정서적 학대는 자해와의 높은 관련성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Croyle & Waltz, 2007).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비난 또는 멸시 등의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자기비하가 심해지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결핍됨으로써 자해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Kent & Waller, 2000). 또한 정서적 학대 경험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심리적 문제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다(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학대가 어떠한 과정이나 기제를 통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같은 원격 위험요인과 다른 위험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비자살적

자해로 발전하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Bentley, Nock, & Barlow, 2014), 정서적 학대 경험은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으로(김은경, 이정숙, 2008), 치료적 시점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치료적 개입이 용이한 변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밀한 경로모형을 검증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정교하게 밝혀줄 매개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파국화 혹은 자기비난 등의 부적응적 인지양식을 거쳐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Glassman, Weierich, Hooley, Deliberto, & Nock, 2007).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경험이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하여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다수의 매개변인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강민아,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은 인지적, 정서적인 다각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인혜, 송현주, 2014)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적 매개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인지적 측면의 매개변인으로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초기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EMS)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어린 시절 핵심

적인 정서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경우 형성되는 인지적 구성개념으로(Young, 1990),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인 문제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패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역기능적인 도식들의 집합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정서적 학대는 Young이 제시한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들 중 기본적인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는 경우와 외상경험을 겪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김혜진, 2016; 조현정, 2014). 특히 초기부적응도식의 5가지 심리도식 영역 중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 and Rejection) 도식은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해 가장 크게 손상되는 도식이며(Young, Rygh, Weinberger, & Beck, 2008)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와 심리내적, 대인관계 문제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vete, Estevez, Lopez de Arroyabe, & Ruiz, 2005). 또한 초기부적응도식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서 다른 하위도식들은 선행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보고된 반면, 단절 및 거절 도식은 공통적으로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stille, Prout, Marczyk, & Shmidheiser, 2007; Leppanen, Vuorenmaa, Lindeman, Tuulari, & Hakko, 2016; Lewis, Lumley, & Grunberg, 2015; Trincas et al., 2014; Quirk, Wier, Martin, & Christian,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심리도식 영역 중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단절 및 거절’ 영역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기존의 초기부적응도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초기부적응도식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초기부적응도식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주는 개입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eim, Shugart, Craighead와 Nemeroff(2010)은 도식 측정에서 성인들에게 아동기의 경험을 회고하도록 하는 방법은 기억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개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정서조절곤란(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이 정서적 학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정서조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통합되고 합의된 정의를 제시하였던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을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능력, 개인의 목표와 상황적 요구에 따라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고 정서조절전략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의 어려움, 즉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Gratz와 Roemer(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나 정서적 명확성/인식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자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직접 작용하였고, Linchan(1993)은 아동기 학대와 정서적 취약성이 자해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고 보았다(구훈정 등, 2014에서 재인용). 이처럼 정서 무시나 무반응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정서를 식별하고 표현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정서조절곤란이 초래되며(Waller, Corstorphine, & Mountford, 2007),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수록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지, 2018; Chapman, Gratz, & Brown, 2006; Nock & Mendes, 2008). 따라서 정서적 학대는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하는 환경적 요인이며(Santucci et al., 2008), 정서조절곤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노, 슬픔, 수치심, 좌절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혜민(2012)에서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강할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고, 최나운(2013)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주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으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조절곤란과 연관이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내면화된 초기부적응도식은 실제 자극이나 상황보다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Young et al., 2003), 초기부적응도식이 강할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하게 되어(길영란, 2012),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부정 정서에 충동적이고 격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자신의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비자살적 자해로 이끌 수 있다(Chapman et al., 2006)고 예상하였다.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게 되면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자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편안함 및 안도감 때문에 개인은 자해 행동을 반복하게 되므로(Chapman et al., 2006), 비자살적 자해의 발생초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 되면 만성화되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가 주로 처음 시작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령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 청소년의 자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청소년 자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 자해를 하게 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의 영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담 장면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접근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 및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학대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모형 1은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함을 나타내는 모형이며(그림 1), 연구모형 2는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함을 나타내는 모형(그림 2)이다. 연구모형 3은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나타내는 연구모형(그림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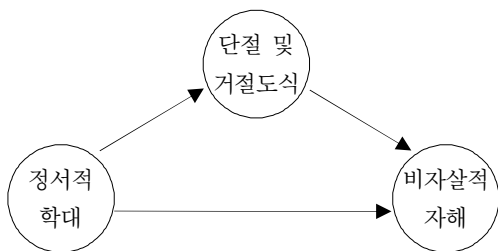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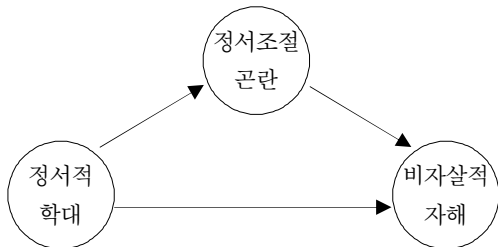


그림 2.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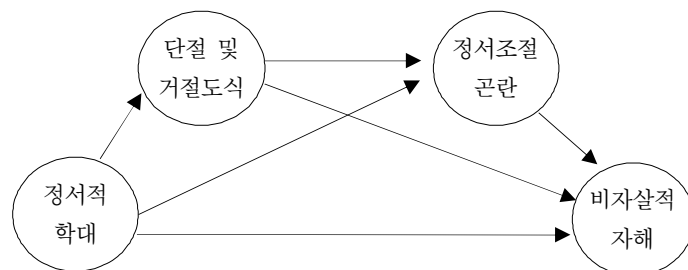


그림 3.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의 이중 매개모형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경험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C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학생과 학부모가 설문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 대상, 참여방법, 설문 실시 절차를 작성한 안내문과

함께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서류봉투에 연구참여자가 설명문 및 동의서와 설문지, 법정대리인 설명문 및 동의서를 동봉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각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배부 시 모든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는 의무가 아니고 자유의사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과 학부모 모두 동의한 학생들만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연구자 이외에는 설문 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이 철저히 유지되기 위하여 설문지를 집에 가서 작성해 오도록 하고 작성 후에는 동의서(학생, 학부모)와 함께 그대로 서류봉투에 넣고 양면테이프를 붙여 밀봉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이 설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출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모두 회수하였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설문지 앞부분에는 수집된 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유지 및 익명성이 보장됨을 서술하였다. 또한 동의서를 함께 제공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밝혔다. 설문 응답 과정에서 불편감이 생길 시,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며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을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한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가능한 센터 연락처를 제공할 것임을 안내하

였다.

자료 수집을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중학교 92부, 고등학교 353부로 총 445부이었다. 이중 자해기능평가지(FASM)에서 최소 1회 이상 자해를 했다고 응답한 자료는 151부(34%)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있거나 성별을 적지 않은 8부와 자살의도가 있었다고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132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43명(32.6%), 여학생이 89명(67.4%)이었으며, 중학생은 27명(20.5%), 고등학생은 105명(79.5%)으로 고등학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연구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IRB-2019A-3)을 받아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

정서적 학대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고성혜(1992)가 제작한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 학대 척도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척도는 동기와 관련된 영역,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영역, 행동 차원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동기 관련 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비일관적하게 대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고(예, “부모님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때가 있다.”),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영역에는 자녀가 받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예, “내가 부모님에 대해 증오심을 품을 정도로 나를 꾸짖

은 적이 있다.”). 또한 행동 차원의 영역에서는 자녀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부모의 구체적인 행동 문항과 언어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예, “너를 괜히 낳았다.”라는 말을 들은 빈도). 각 문항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18세 이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없었다, 2점: 드물게 있었다, 3점: 가끔 있었다, 4점: 자주 있었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3이었다.

자해 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

본 연구에서는 Lloyd-Richardson, Kelly와 Hope (1997)가 개발하고, 권혁진(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해기술 평가지를 사용하여 비자살적 자해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 및 방법을 측정하는 12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자해 방법을 7점 Likert 척도(0점: 전혀 없음, 6점: 6회 이상의 자해 경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자해행동과 관련된 요인(자해 시의 고통 정도, 자해 시 약물복용 여부, 자해의 첫 발병 연령 등)을 파악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동기를 측정하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없었다, 2점: 드물게 있었다, 3점: 가끔 있었다, 4점: 자주 있었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영역의 12문항 중 4번 문항(‘문신을 하였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신은

DSM-5(2003)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제로 문신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에 대해서 4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자해 방법들의 빈도 점수 총합을 사용하였다. 자해 기능 평가지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권혁진(2014)의 연구에서 전체 .80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영신(2015)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0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은 전체 .86, 요인 1(사회적 동기)은 .82, 요인 2(개인내적 동기)는 .78로 나타났다.

초기부적응도식-단절 및 거절 도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이 개발하였고, 이미열(2006)이 번안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Form: YSQ-SF)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의 5요인 중 단절 및 거절 영역에 해당되는 2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박탈’, ‘불신/학대’, ‘유기/불안정’,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가끔 아니다, 3점: 약간 아니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거의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열(2006)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3 - .91로 나타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예나와 이은경(2013)의 연구에서는 .78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전체 내적 일관성은 .97로 나타났다.

한국판 청소년용 정서조절곤란 척도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박지선(2013)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정서조절곤란 척도(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에 대한 자각 부족, 정서 명확성 부족, 충동 통제 어려움, 정서조절전략 부족, 목표 지향 행동의 어려움의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선(2013)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3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분석에 앞서 결측값이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SPSS를 사용하여 왜도와 첨도, 이상값,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SPSS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포함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을 확인하였다. 셋째, SPSS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정서적 학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의 상관을 검증하였다. 넷째, SPSS macro의 모형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다음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SPSS macro의 모형 6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Preacher과 Hayes(2004)가 제안한 10,000번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들은 비표준화 계수로 보고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Hayes, 2015),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를 비표준화 계수로 표기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전체 445명 중 한 번 이상 자해를 시도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151명(33.9%)이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거나 성별을 적지 않은 8부를 제외하였다. 143부 중 죽고자 하는 의도 여부에서 '의도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2명(92.3%), '의도 있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했다고 응답한 13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32명 중 여자가 89명(67.4%), 남자가 43명(32.6%)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15.37세($SD=1.10$)이었다. 비자살적 자해를 처음으로 시도한 연령은 평균 만 13.3세($SD=2.42$)로 보고되었다.

비자살적 자해 방법의 빈도 분석 결과, 한 번 이상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해 평균 빈도수는 9.96($SD=8.39$)이

었으며,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방법으로는 ‘자신을 깨물었다(예, 입 또는 입술 등)’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4명(63.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다’ 62명(47.0%),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56명(42.4%),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54명(40.9%), ‘몸에 있는 상처를 꼬집었다’ 36명(27.3%), ‘칼로 피부를 긁거나 피부에 무엇인가를 새겼다’ 28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법에는 10명(7.6%)이 응답하였으며, 방법에는 ‘손톱이나 손을 뜯거나 문다’, ‘자기 몸에 연필이나 볼펜을 긁기’, ‘약 과다 복용’, ‘같이 아닌 도구로 피가 나게 함’ 등이 보고되었다.

비자살적 자해 동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살적 자해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문항은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가 33명(25.0%)이었고, 다음으로 ‘학교,

일 또는 다른 활동들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가 각각 22명(16.7%)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마비감 또는 공허감을 완화하기 위해’가 21명(15.9%)을 차지했다. ‘기타’는 10명(7.6%)으로 동기에는 ‘무의식적으로, 멍 때릴 때’, ‘습관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나서’,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고,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학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 간 상관관계

정서적 학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M	SD	Max	Min	왜도	첨도
정서적 학대	31.50	9.10	76	24	2.01	4.87
단절 및 거절도식	45.39	24.61	115	25	1.16	0.17
정서조절곤란	49.05	23.57	103	0	0.45	-0.68
비자살적 자해	9.96	8.39	32	1	0.22	-1.27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1. 정서적 학대	1			
2. 단절 및 거절도식	.48***	1		
3. 정서조절곤란	.35***	.60***	1	
4. 비자살적 자해	.12	.35***	.38***	1

주. *** $p < .001$

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와 종속변수인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는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r=.48, p<.001; r=.35,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r=.60, p<.001$)을 보였고 비자살적 자해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r=.35, p<.001$)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r=.38,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SPSS PROCESS model4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는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288, p<.001$). 따라서 정서적 학대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정서적 학

대 경험이 단절 및 거절도식에 보이는 설명력은 22.7%($R^2 = .227$)였다. 정서적 학대와 단절 및 거절도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인 단절 및 거절도식은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13, p<.001$),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6$). 따라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이 높아지며, 단절 및 거절도식이 높아지면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로 할 경우에만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모형의 총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다($R^2 = .127$).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685~.2857]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2302

표 3.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하한값	상한값	F	R ²
비자살적 자해	정서적 학대	0.108	.080	1.35	-0.0505	0.2671	1.82	.014
단절/거절도식	정서적 학대	1.288	.209	6.18***	0.8752	1.700	38.15***	.227
비자살적 자해	단절/거절도식	0.13	.032	4.09***	0.0673	0.1935	9.37***	.127
	정서적 학대	-0.06	.086	-0.69	0.4908	-0.2302		

주. *** $p<.001$

표 4. 단절 및 거절도식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	
			LLCL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정서적 학대→비자살적 자해)	.108	.080	-.0505	.2671
직접효과 (C': 정서적 학대→비자살적 자해)	-.06	.086	-.2302	.1110
간접효과 (정서적 학대→도식→비자살적 자해)	.168	.055	.0685	.2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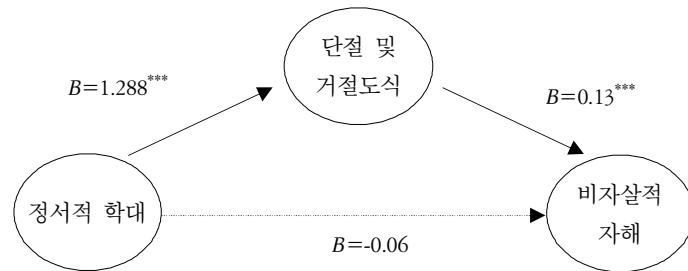


그림 4.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모형

~.1110]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SPSS PROCESS model4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첫째, 정서적 학대는 매개변수인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909, p<.001$).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 역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보이는 설명력은 12.3%($R^2=.123$)이었다. 독립변수인 정서적 학대와 매개변수인 정서조절곤란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은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137, p<.001$)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6$). 따라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할 경우에만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모형의 총 설명력은 14.3%로 나타났다

표 5.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하한값	상한값	F	R ²
비자살적 자해	정서적 학대	0.108	.080	1.35	-0.0505	0.2671	1.82	.014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학대	0.909	.213	4.28***	0.4885	1.3299	18.28***	.123
비자살적 자해	정서조절곤란	0.137	.031	4.41***	0.0754	0.1980	10.77***	.143
	정서적 학대	-0.016	.08	-0.20	-0.1747	0.1428		

주. *** $p < .001$

표 6.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	
			LLCL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정서적 학대→비자살적 자해)	.108	.080	-.0505	.2671
직접효과 (C': 정서적 학대→비자살적 자해)	-.016	.080	-.1747	.1428
간접효과 (정서적 학대→정서조절곤란→비자살적 자해)	.124	.049	.0486	.2398

($R^2 = .143$).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486~.2398]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1747~.1428]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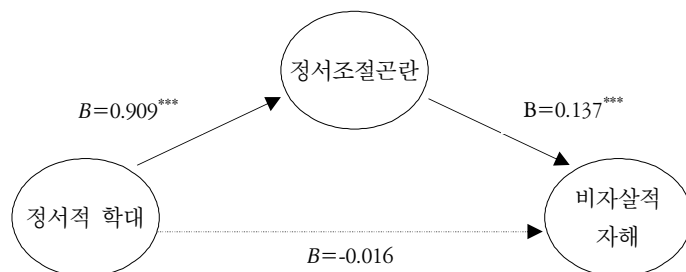


그림 5.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SPSS PROCESS model6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서적 학대는 매개변수인 단절 및 거절도식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1.288, p<.001$), 종속변수인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108$). 이는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 역시 높아지는 반면,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도식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22.7\%(R^2=.227)$ 였다. 둘째, 정서조절곤란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단절 및 거절도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단절 및 거절도식만이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34, p<.001$). 따라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36.3\%(R^2=.363)$ 였다. 마지막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비자살적 자해에 정적 영향 ($B=.079, p<.05; B=.096, p<.01$)을 미쳤으나 정서적 학대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이 높아지며,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이 높으면 정서조절곤란도 상승하고, 정서조절곤란이 높으면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총 설명력은 17.3% 로 나타났다($R^2=.173$).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검증 결과, 경로1(정서적 학대->단절 및 거절도식->비자살적 자해)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표 7.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하한값	상한값	F	R ²
비자살적 자해	정서적 학대	0.108	.080	1.35	-0.0505	0.2671	1.82	.014
단절/거절도식	정서적 학대	1.288	.209	6.18***	0.8752	1.7001	38.15***	.227
정서조절곤란	단절/거절도식	0.534	.077	6.97***	0.3822	0.6851	36.78***	.363
	정서적 학대	0.222	.207	1.07	-0.1874	0.6315		
비자살적 자해	단절/거절도식	0.079	.037	2.16*	0.0068	0.1514	8.95***	.173
	정서조절곤란	0.096	.036	2.68***	0.0252	0.1670		
	정서적 학대	-0.081	.085	-0.96	-0.2484	0.0865		

주. * $p<.05$, ** $p<.01$, *** $p<.001$

표 8. 단절 및 거절도식 및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L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C: 정서적 학대→자해)	.108	.080	-.0505	.2671
직접효과(C': 정서적 학대→자해)	-.081	.085	-.2484	.0865
정서적 학대→도식→자해	.102	.062	-.0216	.2227
정서적 학대→정서조절→자해	.021	.031	-.0263	.0999
정서적 학대→도식→정서조절→자해	.066	.033	.0113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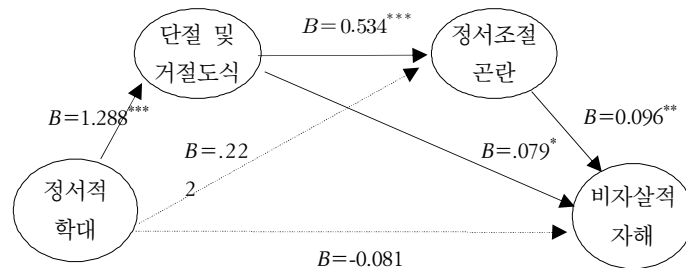


그림 6.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모형

95% 신뢰구간에서 [-.0216~.2227]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2(정서적 학대→정서조절곤란→비자살적 자해)는 95% 신뢰구간에서 [-.0263~.099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3(정서적 학대→단절 및 거절도식→정서조절곤란→비자살적 자해)의 간접효과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113~.1426]. 반면,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2484~.086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미했던 비임상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탐색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가 주로 처음 시작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령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로 비자살적 자해에 이르는 경로와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비자살적 자해에 이르는 경로,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비자살적 자해에 이르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445명 중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2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20% 정도가 자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강민아, 2018; 김화정, 송현주, 2019; 안영신, 2015; 이동귀, 함경애, 배병훈, 2016; Ross & Heath, 2002; Swannell, Martin, Page, Hasking, & St John, 2014)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해 비율이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정보 노출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자해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아(성나경, 강이영, 2016; 안영신, 송현주, 2017) 실제 자해 수치보다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해를 할 경우 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자신의 힘들음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점에서(이동귀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설문 참여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비자살적 자해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25%)이었으며, 높은 비율의 응답을 나타내는 동기들은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16.7%), ‘고통스럽더라도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16.7%),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15.9%), ‘마비감 또는 공허감을 완화하기 위해’(15.9%)와 같은 개인내적 동기로, 자해를 하는 주된 이유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Lloyd et al., 2007; Saraff, Trujillo, & Pepper, 2015)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압도적인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Conterio & Lader, 1998; Froeschle & Moyer, 2004).

셋째, 정서적 학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조절곤란, 비자살적 자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학대와 종속변수인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살의도가 있는 자해(자살적 자해) 청소년을 포함한 143명의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47, p<.0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살적 자해를 한 청소년이 비자살적 자해를 한 청소년보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적 자해 집단의 경우 비자살적 자해 집단에 비해 아동기 학대 경험, 무망감, 섭식장애, 주요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되었다(Jacobson,

Muehlenkamp, Miller, & Turner, 2008)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귀 등(2016)에서도 자살의도 유무를 판별하는 예측변인을 탐색한 결과, 가정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의도가 있는 자해 청소년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의도를 동반한 자해집단이 비자살적 자해 집단보다 고위험군으로,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가 있는 가정 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를 분류하여 자살사고 존재 여부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가 질적으로 구별된다면 자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의 측면에서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에서 다른 변인이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동기 부모의 과보호와 방임 등의 정서적 학대경험이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구훈정 등(2014)에서도 두 변인의 상관 정도가 약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자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entley 외(2014)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직접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바로 비자살적 자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해로 연결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는 비자살적 자해의 원격 위험 요인으로 직접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격화나 자기비판 등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매개로 하여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구훈정 등, 2014)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인 정서욕구는 초기부적응도식을 유발하고(Young, 1990), 초기부적응도식이 활성화되면 아주 강렬하고 압도적인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고(Nock, 2009),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이를 대처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시도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적 학대경험과 비자살적 자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차후 비자살적 자해의 치료적 개입을 위해 인지적 요소인 단절 및 거절도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도식치료(Schema therapy)를 통하여 기존 도식의 강도와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기 처벌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부적응적 대처양식인 자해행동을 적응적인 행동 패턴으로 대처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다. 도식치료의 인지적 개입으로 정서적 학대의 원인을 자기로 보는 관점, 자신에게 결점이 많다는 신념을 수정하도록 하고(Dobson & Dozois, 2014/2019), 경험적 개입으로 부모에게서 충족 받지 못하였던 욕구를

치료자가 상담 장면 내에서 채워줌으로써 도식이 변화되도록 돕는 제한된 재양육(limited-reparenting)을 제공하며(구훈정 등, 2014; 박선영, 2011), 심상을 통해 부모에게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도록 하는 작업이 비자살적 자해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부적응도식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인지적 왜곡, 자기 패배적 생활 패턴, 대처방식의 영속화를 통해 다양한 정신 병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Young et al., 2003), 청소년기에 초기부적응도식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교정해 주는 개입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는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하는 환경적 요인이며, 정서조절곤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분노, 수치심, 슬픔, 좌절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고통에 압도되어 이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부적응적 전략으로 비자살적 자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는 또 다른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야기하며(Kring, Werner, Philippot, & Feldman, 2004; Silk, Steinberg, & Morris, 2003), 정서조절곤란이 자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임선영,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이 비자살적 자해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며, 비자살적 자해의 치료적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촉진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줄일 필요도 있으나,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에는 정서조절능력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정서적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하는 경험을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심리학적 대처 전략들을 제공하여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Linehan, 1993; 최초롱, 2013에서 재인용). 심리적 대처 전략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 행동을 살펴보게 하여 조건화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고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챙김 기술(Marra, 2005)과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도록 가르치고, 정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 개인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관리하도록 돕는 정서조절기술(Dijk, Jeffrey, & Katz, 2013), 그리고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도록 하며, 자신의 경험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자신의 신체반응이 어떤지 느끼고, 관찰하여 고통을 수용하는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 고통감내 기술이 있다(Marra, 2005). 마음챙김 기술과 고통감내 기술은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정서적 불편감을 수용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정서조절기술은 정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정서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대처 기술(긍정적 감정 늘리기, 반대로 행동하기, 감정일기 등)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적 강렬함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

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으며(권혜미, 2013), 비자살적 자해가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전략을 적용하도록 하여 비자살적 자해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역기능적인 인지적인 틀인 단절 및 거절도식을 활성화하고, 단절 및 거절도식은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여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한 채 타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거나 심리적 고통을 감소 혹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서만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격 위험 요인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직접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근접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과 고통 감내력과 같은 개인내적 취약성과 의사소통기술의 부족과 같은 대인관계 취약요인을 유발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쾌한 정서 및 사회적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시도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게 된다는 Nock(2009)의 통합적 이론모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그 자체의 심리적인 문제보다 환경과 상

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적인 변화를 통해 부적응과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들(김은정, 김진숙, 2010; 이영웅, 2010; 이지영, 손정락, 2010)과 유사하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개인의 특성요인에 해당하는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고, 이러한 개인내적요인이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상담할 경우, 학대 경험은 개인적인 힘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학대를 당한 경험은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이므로(김은경, 이정숙, 2008),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선 청소년의 단절 및 거절도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자살적 자해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의 자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담자의 단절 및 거절도식을 확인하고 이것이 정서조절곤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며, 단절 및 거절도식을 적절하게 교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자해의 원격취약요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로 발전하게 되는지 새로운 심리적 경로와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로 연

결되는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정서적 학대경험이 어떻게 자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안정적 요인으로서 치료적 시점에서 개입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 경험 대신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인지적 요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 측면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초기부적응도식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 높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보이는 군을 위험집단으로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적절하게 교정해주기 위한 심리도식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들을 위한 도식치료로는 제한된 재양육, 욕구와 감정에 대한 타당화, 양육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발달 등을 통해 좌절된 핵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처벌적인 부모 양식에 대항하기 위한 교육, 인지적 재귀인, 자존감 확립과 경험적 기법을 사용하여 부적응도식을 변화시키고,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돕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Dobson & Dozois, 2014/2019).

셋째, 지금까지 자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밀하게 자해를 시도하고 자해로 인한 상처를 타인에게 감추려는 경향성이 있으며(Nock, 2010), 학교라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할 경

우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자해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성나경, 강이영, 2016; 안영신, 송현주,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노출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답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C지역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학생과 남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지역 및 성별을 포함했을 때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매개변인의 경로와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 직접적인 상담 개입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교정하고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낮추기 위한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자살시도나 자살사고와 같은 자살예방에 초점을 둔 개입전략이 중심을 이루었고, 자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전략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 자해가 급증한 현 시점에서 상담과 치료분야에서 자해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

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진(2017)의 연구에서는 자해와 관련된 국외 및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보호요인을 상처에 대한 인식, 삶의 목표, 자기(self)의 회복,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해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삶의 목표, 자아탄력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개입 및 실질적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해 시 자살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비자살적 자해 집단과 자살의도가 있는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적 자해 집단과 비자살적 자해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전의 정서적 학대의 빈도를 확인하였을 뿐, 정서적 학대가 일어난 시기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서적 학대가 일어난 시기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정서적 학대라고 인지하는 시기에 따른 정서적 학대와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민아 (2018). 고등학생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비자살적 자해 경험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공성숙 (2009). 섭식장애 환자의 섭식장애 증상, 우울, 강박성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9(4), 459-468.
- 공성숙, 이정현, 신미연 (2009). 섭식장애 환자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간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8(1), 31-40.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권혁진 (2014).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지적 요인의 탐색.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미 (2013). DBT(Dialectical Behavior Therapy)가 우울성향의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영란 (2012).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 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다람 (2016). 청소년의 상위정서철학,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자살 사고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5). 비자살적 자해와 애착 연구 개

- 관: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2(3), 1-24
- 김수진 (2017).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개관. *청소년학연구*, 24(9), 31-53.
- 김예나, 이은경 (2013).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분노사과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181-200.
- 김은경, 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인혜, 송현주 (2014).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65-78.
- 김창호, 이미애, 이근매 (2014).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의 자해 행동, 자리이탈 행동, 자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6(4), 287-306.
- 김철권, 조진석, 변원탄 (1992). 비행청소년 반복자해군과 비자해군간의 통각내성치에 대한 Naloxone 효과의 차이. *신경정신의학*, 31, 767-777.
- 김혜진 (2016). 초기성인기 이성 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정, 송현주 (2019).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1, 1-20.
- 박선영 (2011). 경계선 성격장애 미혼여성의 부적응 도식 완화와 이성관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2013).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27-746.
- 성나경, 강이영 (2016).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해행동: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55-873.
- 송혜민 (2012). 초기부적응도식과 성격병리의 관계: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신 (2015).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신, 송현주 (2017).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3(4), 257-281.
- 어해룡 (2011). 자해하는 남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모래놀이상담연구*, 7, 55-81.
- 이동귀, 함경애, 배병훈 (2016). 청소년 자해행동: 여중생의 자살적 자해와 비자살적 자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71-1192.
- 이동귀, 함경애, 정신영, 함용미 (2017). 자해행동 청소년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재활심리연구*, 24(3), 409-428.
- 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 청소년 자해의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8(1), 1-24.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

- 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용 (2015). 장애 학생의 자해행동에 대한 국내 실험연구 분석. *행동분석·지원연구*, 2, 63-86.
- 이영웅 (2010). 정서적 학대 경험, 부정적 자기 개념, 수치심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임선영 (2014).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 조절곤란이 폭식과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충동성 이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성일, 홍강의 (1996). 신체 질환과 연관된 심한 자해로 입원한 아동 보고 1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58-266.
- 정경미 (2010). 공격 자해 파괴행동에 대한 행동적 접근. *한국재활심리학회 연수회*, 56-104.
- 조은지 (2018).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나윤 (2013).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초롱 (2013).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 훈련이 정서지능이 낮은 대학생의 정서지능, 대인관계문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홍석, 박주연 (2011). 긍정적 행동지원이 중증 자폐성 장애학생의 자해행동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7(1), 141-16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entley, K. H., Nock, M. K., & Barlow, D. H. (2014). The four-function model of nonsuicidal self-injury: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5), 638-656.
- Calvete, E., Estevez, A., Lopez de Arroyabe, E., & Ruiz, P. (2005). Th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2), 90-99.
- Castille, K., Prout, M., Marczyk, G., & Shmidheiser, M. (2007).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of self-mutilators: Implications for therap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1(1), 58.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 371-394.
- Conterio, K., & Lader, W. (1998). *Bodily harm*. New York: Hyperion
- Croyle, K. L., & Waltz, J. (2007). Subclinical self-harm: Range of behaviors, extent,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332-342.
- Dijk, S., Jeffrey, J., & Katz, M. R. (2013).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 of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skills in a

- psychoeducational group for individuals with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5(3), 386-393.
- Dobson, K. S., & Dozois, D. J. (2019). 인지행동 치료 핸드북 (김은정, 원성두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4에 출판).
- Favazza, A. R. (1996). *Bodies under siege: Self mutilation and body modification in culture and psychiatry*.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Favazza, A. R. (1998). The coming of age of self-mutil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259-268.
- Froeschle, J., & Moyer, M. (2004). Just cut it out: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in counseling students who self-mutilat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31-235.
- Glassman, L. H., Weierich, M. R., Hooley, J. M., Deliberto, T. L., & Nock, M. K. (2007). Child maltreatment, non-suicidal self-injury,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0), 2483-2490.
- Gollust, S. E., Eisenberg, D., & Golberstein, E. (200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lf-injur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6(5), 491-498.
- Gratz, K. L., Conrad, S. D., & Roemer, L. (2002). Risk factors for deliberate self-harm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1), 128-140.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atz, K. L., & Roemer, L.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deliberate self-harm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t an urban commuter universit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7(1), 14-25.
- Hayes, F. Andrew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 분석 (이형권 역). 경기: 신영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Heim, C, Shugart, M., Craighead, W. E., & Nemeroff, C. B. (2010). Neurobiological and psychiatric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52(7), 671-690.
- Jacobson, C. M., Muehlenkamp, J. J., Miller, A. L., & Turner, J. B. (2008). Psychiatric impairment among adolescents engaging in different types of deliberate self-harm.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2), 363-375.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n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I: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ent, A., & Waller, G. (2000).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ating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7), 887-903.
- Klonsky, E. D. (2007) Non-Suicidal Self-Injury: An Introdu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63(11), 1039.
- Klonsky, E. D., & Muehlenkamp, J. J. (2007). Self-Injury: A Research Review for the Practition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1), 1045-1056.
- Kring, A. M., Werner, K. H., Philippot, P., & Feldman, R. S. (2004). The regulation of emotion. *Lawrence Erlbaum*, 359-385.
- Laye-Gindhu, A., & Schonert-Reichl, K. A. (2005). Nonsuicidal self-harm among community adolescents: Understanding the “whats” and “whys” of self-har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5), 447-457.
- Leppanen, V., Vuorenmäa, E., Lindeman, S., Tuulari, J., & Hakko, H. (2016). Association of parasuicidal behaviour to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chema modes in patients with BPD: The Oulu BPD study.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10(1), 58-71.
- Lewis, S. P., Lumley, M. N., & Grunberg, P. H. (2015).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young adul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8(4), 386-402.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loyd-Richardson, E. E., Kelley, M. L., & Hope, T.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pro-visional prevalence rates*. Poster sess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ew Orleans, LA.
- Lloyd-Richardson, E. E., Perrine, N., Dierker, L., & Kelley, M. L. (2007).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Medicine*, 37(8), 1183.
- Marra, T. (2006). *변증법적 행동치료* (신민섭, 박세란, 설순호, 황석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5에 출판).
- Martinson, D. (2002). *What self-injury is*, <http://buslist.org/injury.html> 에서 검색
- Mental Health Foundation. (2006). Truth Hurts Report, <http://www.mentalhealth.org.uk/publications/?EntryId5=38712>.에서 검색
- Muehlenkamp, J. J. (2005). Self-injurious behavior as a separate clinical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324-333.
- Nock, M. K. (2009). Why do people hurt themselves? New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elf-inju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2), 78-83.
- Nock, M. K. (2010). Self-Injur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339-363.
- Nock, M. K., & Mendes, W. B. (2008). Physiological arousal, distress tolera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mong adolescent self-injur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2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Quirk, S. W., Wier, D., Martin, S. M., & Christian, A. (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rejection o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schemas, rumination, and motivations for

- self-injur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2), 283-295.
- Ross, S., & Heath, N. (2002). A study of the frequency of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1), 67-77.
- Santucci, A. K., Silk, J. S., Shaw, D. S., Gentzler, A., Fox, N. A., & Kovacs, M. (2008). Vagal tone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0(3), 205-216.
- Saraff, P. D., Trujillo, N., & Pepper, C. M. (2015). Functions, consequences, and frequency of non-suicidal self-injury. *Psychiatric Quarterly*, 86(3), 385-393.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wannell, S. V., Martin, G. E., Page, A., Hasking, P., & St John, N. J. (2014). Preval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nonclinical samples: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3), 273-303.
- Szur, R. (1987).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her (Ed.),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Trincas, R., Ottaviani, C., Couyoumdjian, A., Tenore, K., Spitoni, G., & Mancini, F. (2014). Specific dysphoric symptoms are predicted by early maladaptive schema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4, 1-7.
- Waller, G., Corstorphine, E., & Mountford, V. (2007).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eating disorders: Implications for treatment. *Eating Disorders*, 15(4), 317-331.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Young, J. E., Rygh, J. L., Weinberger, A. D., & Beck, A. T. (2008).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Barlow, D. H.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A step-by-step treatment manual* (4th ed.), (pp.250-305). New York: Guilford Press.
- Zila, L. & Kiselica, M. (2001).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self-mutilation in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1), 46-52.

원 고 접 수 일 : 2020. 01. 15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6. 22

게 재 결 정 일 : 2020. 08. 19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Emotion Dysregulation

Lee Su Jeong

Kim, Jong-Nam

Seoul Women's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445 adolescents, including 92 middle school students and 353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a survey. A total of 132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fter excluding those in which participants indicated suicidal intentions or responded insincer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early maladaptive schema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non-suicidal self-injury. Additionally, emotion dysregulation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non-suicidal self-injury. Finally,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emotion dysregulation had a full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al Abuse, Non-Suicidal Self-Injury, Early Maladaptive Schema,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 Emotion Dysregulation